

금요 양성 2026년 9월 4일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평화 이루기

[2 Cor 13:11-13](#) [코린 2 13, 11-13](#)

“그럼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환영하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형제회안에, 가족안에 또는 직장안에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환영받는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위의 성경 구절을 다시 읽은 후 토론을 위해 아래의 질문들과 관점들을 살펴 보시오.

+ “**자신을 바로 잡으십시오.**” 바오로 사도는 먼저 우리자신을 봐야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갈등에 기여하고 있는것은 없는지? “말을 너무 하지 않거나 또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닌지? 그 갈등이 우리가 한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기인된 것은 아닌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옳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겸손되어 “자신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서로 격려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또 평의회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는지? 형제적 교정이 필요하다면, 온화한 마음으로 개선할 점 뿐만 아니라 잘한 점도 짚어 주는지?

+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이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멈추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을 거절하기 전에 일치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지? 여전히 뜻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 “**평화로우 사십시오.**” (아래의 회칙을 보시오)

OFS Rule Article 19 재속회 회칙 19조

“회원은 평화의 전달자로서 평화를 끊임없이 건설해야 함을 기억하여, 누구든지 신적 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화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회원은 완전한 기쁨의 선포자이므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재속프란치스칸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몇가지 예를 들어 보시오.

+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사실 모든 사람에게 신적인 요소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해야 할까요?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 오려면,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합니까?

+ 좋은 소통, 경청, 사려깊은 반응 (구두로든 이메일이든)은 형제회, 가족, 직장에 평화를 가져 오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 형제회에 당파심을 가져오는 것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 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오. 형제회가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토론하고 싶으면 어떻게 잘 다루어져야 할까요?

형제회 도전: 위의 질문들을 모두 토론한 후에 불일치를 어떻게 핸들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역할 놀이를 해 보시오. (토론을 이끌어 갈 좋은 진행자가 필요합니다)